

# 현장 양돈교실 본격 개시

- 양돈협,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가 육성 및 승계능 양성



▲ 지난 8월 19일 경북대학교 수의대학에서 현장양돈교실을 개강했다. 이날 최영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이 수료생들에게 양돈 현장에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양돈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했다.

대한양돈협회(회장 최영열)는 양돈농가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양돈 전문가 육성 및 승계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지난 8월 19일 경북대학교 수의대학에서 양돈컨설팅연구소의 안기홍 실장을 지도교수로 현장양돈교실을 개강했다. 이날 개강에는 수강신청자 23명 전원이 100% 참석해 현장양돈교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이날 최영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이 수료생들에게 양돈 현장에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양돈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했다.

첫날, 이기웅 천하제일사료 이사는 '선진양돈국 견학보고 및 최우수 성적사례와 변화'란 주제에서 한국은 현재 FTA, 사료원료 전쟁, 질병, 환

경·분뇨처리, 식품안전성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 또한 덴마크의 PSY 32.5두 농장을 소개하면서 우리양돈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

악할 것을 주장하고 교육생들의 양돈 교육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.

이어진, 오후 강의에서 박진성 천하제일사료 박사는 MSY 28두의 네덜란드 손다그(Sondag)농장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도태계획에 의한 실행과 계획에 따른 사양관리가 그 비결임을 밝혔다.

현장양돈교실은 8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경북대학교 수의대학에서 실시되며 사양관리에서 양돈시장의 유통현황, 사료 영양, 농장 그룹관리, 질병 등 양돈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실시한다.

양돈협회는 현장양돈교실을 통해 전문 양돈인을 배출함으로써 양돈업의 전문화,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**양돈**